

화려하게 다양하게



마마무 휘인, 첫 솔로
미니앨범 '레드(Redd)'

타이틀곡 '워터 컬러'
'난 다 잘 어울려'
부분이 킬링 포인트

"그동안 싱글을 통해 보여준 매력에 좀 정적이고 감성적인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화려하고 다양한 저만의 색깔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 마마무 휘인이 13일 오후 6시 첫 솔로 미니앨범 '레드(Redd)'를 발매한다. 뉴 잭 스윙 기반의 타이틀곡 '워터 컬러'는 몇 번이고 덧칠해도 좋으니, 자신의 가치를 더욱 진하게 그려내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휘인은 이날 소속사 RBW를 통해 "앨범 타이틀 레드(Redd)는 '정돈하다' '치우다'라는 뜻으로 거칠었던 취향들을 벗어나서 솔직한 저의 색을 칠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앨범에도 음악적인 넓은 스펙트럼에 중점을 많이 뒀다. 특히 '워터 컬러'는 "수채화처럼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칠해간다"는 의미다.

"저 자신에 대한 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킬링 포인트는 '난 다 잘 어울려'

러!'라는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이 곡의 분위기를 카리스마 있게 잡아주는 부분이죠."

타이틀곡 외에 반려묘 꼬꼬와 팬이라는 실존 대상을 머릿속에 그려며 가사와 멜로디를 작업한 '오후'와 '봄이 나에게'를 애착이 가는 곡으로 꼽았다.

또 앨범에는 래퍼 pH-1, 가수 지소울(Gsoul)이 피처링에 참여했다. 휘인은 "곡의 분위기가 내 보이스 컬러와도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했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이에요. 곡의 만족도 역시 최상"이라고 흠뻑해했다.

첫 솔로 앨범을 발매한 만큼, 활동에 대한 마음도 다잡고 있다.

휘인은 "팬분들과 대중분들의 기대만큼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음악적으로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서 "또 솔로로서 첫 활동을 하는 만큼 최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었다"고 다짐했다. /뉴스시스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

(사진=방탄TV 동영상 캡처)

"아미 사랑 여전"… BTS 지민, 비하인드 영상 게재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 통해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

KBS 1TV '9시 뉴스' 출연

그들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아미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전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2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KBS 1TV 9시 뉴스,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 출연 비하인드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에서 지민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상심하게 인터뷰를 하고 싶네요. 뭘가(팬들이) 저희랑 만나서 제대로 축하해 주고 축하를 받을 상황이 아니디

보니까.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답변해 보도록 하겠다"며 9시 뉴스 출연 전 각오를 다졌다.

지민은 흰색 니트와 검은 슬랙스를 입은 채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인터뷰를 마친 지민은 "이번에 팬분들이랑 못 받게 됐는데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 보고 조금이나마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팬들을 향한 그리움을 전했다.

이후 지민은 '배철수의 음악캠프' 비하인드를 통해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거 같다. 근데 오늘 이렇게라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전했다. /뉴스시스

강영범 의심되면 '139'로

봉준호 감독 '올해는 오스카상 시상'

'미나리' 윤여정 수상 '관심집중'

한국 감독이 세계적인 영화 축제 오스카상에서 한국 여배우·감독에게 트로피를 전달하는 모습이 연출될까.

봉준호 감독이 25일(현지시간) 열리는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상)에서 시상자로 나선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등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연출진은 12일(현지시간) 봉준호 감독 등을 비롯한 시상자 명단을 일부 공개했다.

이날 AP통신은 "오스카 시상식이 텔레비전 쇼보다 훨씬 더 영화 같은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리스 포드, 브래드 피트, 할리 베리, 리즈 위더스푼 등의 에이급 스타들을 시상자 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돈 치들 러네이 켈위거, 리자너 키 등도 시상자로 나설 것이라고 부연하며, 마지막에 "자난해 감독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도 무대에 오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 작년 아카데미 남녀주연상과 조연상을 받은 호아킨 피닉스, 로라 던, 안젤라 바셋, 브라이언 크래스턴, 레지나 킵, 리타 모레노, 등도 시상자로 참석한다.

이날 아카데미 연출진은 시상자를 발표하며 "우리는 이번 시상식을 영화처럼 보이게 만들겠다는 집념에 따라 정말로 뛰어난 스타 출연진을 모았다. 이들 스타를 빛내기 위한 전력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상식을 볼 때) 선글라스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자부했다.

할리우드 주요 연예매체들은 봉 감독의 시상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다. 영화 전문매체 인디와이어는 "역사를 만든 봉준호 감독이 2021년 오스카상에 돌아온다"고 했다. 데드라인은 "봉



준호 감독이 아마도 감독상 시상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올해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자는 한인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의 리 아자 정(정어사) 감독을 비롯해 '노매드랜드'의 클로이 자오, '뱅크'의 데이비드 핀치, '언더 라운드'의 토마스 빈터베르크, '프라이밍 영 우먼'의 에메랄드 페넬 감독 등 5명이다.

'미나리'는 올해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스티븐 연), 여우조연상(윤여정), 각본상 음악상 등 주요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아카데미는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과 '미나리'에 함께 출연한 한예라에게 시상식 참석을 요청했고, 두 배우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ABC 방송을 통해 전 세계 225개 나라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2002년 이후 로스앤젤레스(LA) 돌비 극장에서 열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다른 시상식들이 초청 스타나 관객 없이 후보들을 화상으로만 연결해 진행한 것과 달리 아카데미 측은 후보들의 화상 참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에 아카데미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곳의 장소를 현장 연결하는 형식으로 시상식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아카데미 측은 돌비극장을 비롯해 LA 유니언 스테이션, 쇼팽센터 할리우드 앤드 하이랜드, 유럽 현지 등에 특정 무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뉴스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포크가수 양하영, 삶 들여다본다… KBS 1TV '백투더뮤직'

오늘 오후 1시 · 17일 오전 10시 30분

포크 가수 양하영의 삶이 조명된다. KBS 1TV '백투더뮤직'은 오는 14일 오후 1시와 17일 오전 10시 30분 '가슴앓이-양하영 편'을 방송한다.

양하영의 포크 인생은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큰 언니와 작은 언니로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뒤부터 포크 음악에 빠지기 시작했다.

양하영은 헬부르에서 포크 듀오 '현마음'을 결성하고 1983년 가요계에 데뷔했다. 데뷔곡인 '가슴앓이'는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양하영은 1987년 '춧불 켜는 밤'으로 솔로 활동에 나섰다. '춧불 켜는 밤'은 가요차트 상위권에 올랐고, 하이틴 스타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진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음악동료 장덕의



KBS 1TV '백투더뮤직' 양하영 편 영상 캡처

죽음과 갑상선 암으로 아픔을 겪기도 했다. 양하영은 작년 신곡 '가슴 멍클하게 살아야 한다'를 발표, 다시 대중 앞에 섰다. /뉴스시스